19일 Market Index
코스피 2559.21 (-15.51)
코스닥 883.89 (-7.40)
금리(국고채 3년) 3.887 (-0.004)
환율(원·달러) 1328.50 (+4.1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尹대통령 방미 첫날부터 9개국 양자회담 강행군 02

19일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안내견들과 시각장애인 파트너,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前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윌리엄 손튼(William Thornton) 세계안내견협회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박태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교장. /삼성

장애인 인식 개선 이끈 故 이건희 회장의 혜안 JY, '동행'으로 잇는다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
이건희 신경영 선언 첫 CSR 사업
기업운영 세계 유일 안내견 학교
삼성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삼성이 개를 키운다고?"

삼성이 안내견학교를 개교하며 고(故)이건희 회장이 들은 이야기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안내견 사업은 이제는 3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 개선에 이바지 하며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관련기사 3면〉

삼성은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기념식 자리의 맨 앞줄에서 1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며 안내견 사업에 대한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재용 회장은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식순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마다 옆 자리 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검은 리트리버 안내견과 눈을 맞추며 애정을 보였다.

홍라희 전 관장은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안내견 사업은)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시던 사업"이라며 "회장님이 오늘 이 30주년 기념식을 보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3년 9월 개교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직후 시작된 첫 번째 사회적 책임(CSR) 사업이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안내견학교다. 1994년 안내견 '바다'를 분양한 이래 매년 12~15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매칭시켜주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80두를 사회에 분양했다. 현재는 76마리가 사회에서 안내견으로 활동 중이다. 가령 10마리의 후보견들이 있다면 이중 평균적으로 3마리 정도가 안내견으로 합격해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기어 안내견 양산은 쉽지 않은 숙제로 여겨진다.

안내견 사업은 삼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삼성은 '진정한 복지 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었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이는 '초일류 삼성'을 향한 첫 행보를 CSR 사업로 꼽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안내견 사업을 두고 '잔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심정'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라며 CS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은 '동물을 통한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세계안내견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은행 대출 신규연체 석달 연속 2조 '비상'

7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0.39%
기업 0.41% 가계 0.36%로 상승
금감원, 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

은행권이 대출 연체로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연체 발생 규모가 석달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고,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7%를 넘어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7%p나 높아졌다.

7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원이다. 작년 1조원을 밑돌던 신규 연체 규모는 지난 3월 1조7000억원, 4월 1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5월부터는 석 달째 2조원대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분기말 대규모 상·매각을 실시한 전월(3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분기 중인 지난 4월(9000억원), 5월(1조3000억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작년 7월 대비로는 0.05%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01%p 상승한 0.12%, 중소기업대출이 0.06%p 상승한 0.49%로 집계됐다. 중소법인 연체율 0.51%,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45%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6%p, 0.04%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 특히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 대비 0.09%p 높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 말 대비 0.01%p 상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 포럼' 성료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韓, 성장률 전망 '유지'… 美·日 등은 '상향'

OECD, 올 성장률 예측치 발표
韓 1.5% 그대로… 내년은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5%로 유지했다.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OECD는 지난 6월 전망보다 낮추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국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또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에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대에서 3%대로 상향 조정했다.

1.5%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정책목표(1.4%)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도 1.4%를 예상한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를 점치고 있다.

OECD가 기존 예측을 고수했지만 주요국에 견줘볼 때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전망은 기존 2.7%에서 3.0%로 0.3%포인트(p) 올렸다. G20 전망치 또한 종전 2.8%에서 0.3%p 상향한 3.1%로 제시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1.6%에서 2.2%로 큰 폭으로 올렸다. 일본도 1.3%에서 1.8%로 0.6%p 상향 조정했다.

이외의 전망치 상향 폭은 프랑스가 0.2%p(0.8→1.0%), 스페인 0.2%p(2.1→2.3%), 멕시코 0.7%p(2.6→3.3%), 튀르키예 0.7%p(3.6→4.3%) 등이다.

부동산경기 부진을 겪는 중국에 대해선 5.4%에서 5.1%로 0.3%p 내렸다. 최근 원유 감산조처를 지속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9%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GDP성장 전망치도 지난 6월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또 올해 물가가 3.4%, 내년 물가는 2.6%로 종전과 상승 전망을 동일하게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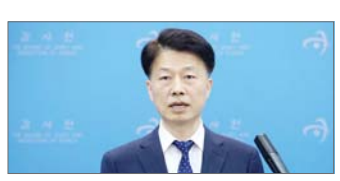
버스티비 JTBC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측 전문가 2차 파견" /사진 뉴시스

▲ 윤 대통령, 김동철 한전사장 임명 재가 … 내일 방문규 장관 임명

▲ 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원→50만원으로 인상

▲ 당정, 청년복지정책 내년 예산안 3309억원 추정



▲ 윤 "신도시 건설에 기여 기대" 투르크 대통령 "한국 기업 참여 요청"

▲ 감사원 "문정부, 총선 전 집값 통계조작 확대" /사진 뉴시스

尹, 방미 첫날부터 스리랑카 등 9개국과 양자회담 강행군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정상외교전
스리랑카와 기후변화협력 체결 약속
수교 30여년 만에 부룬디와 첫 회담
이어 체코·덴마크 등과 협력 진행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18일(현지시간) 9개국 정상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한-산마리노 정상회담, 한-부룬디 정상회담, 한-체코 정상회담, 한-덴마크 정상회담, 한-몬테네그로 정상회담,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한-세인트루시아 정상회담,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부터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릴레이 양자회담을 하며 9개국 정상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순방 첫날 가졌던 동포간담회도 생략하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상외교'를 최후의 필승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양자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부산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개발협력과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교역·투자 협력 협정' 추진과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00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텔레 톤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고, 관광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인적 교류 증진, 통상 분양 교류 증진 등을 논의했다. 산마리노는 이탈리아 내륙 국가로 인구가 3만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BIE 회원국으로서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메 부룬디 대통령과도 1991년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메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은다이시메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운전에 한국 기업 참여를 비롯해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과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하고 녹색 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2021년 5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평가하며 "앞으로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점 논의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정보기술(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문서'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하고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알카닥 신도시 건설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인트루시아 조셉 피에르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카리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사무국 소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 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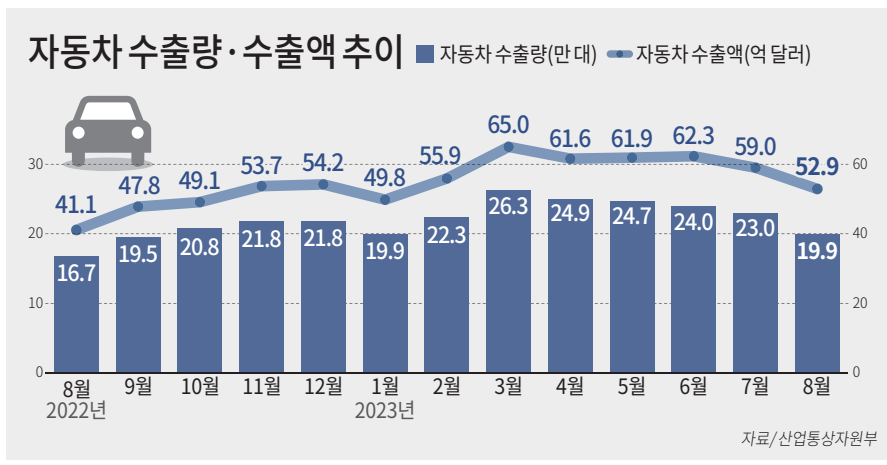
이에 피에르 총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지원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보수 지원은 내년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크리켓 월드컵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젤코 콤쉬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 위원장과 1995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車 수출 날개… 14개월 연속 증가율 두자릿수

산업부, 지난달 52.9억 달러 수출
전기차 수출 증가율 61% 급증가
총 수출액 3분의 1 친환경차 차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수출이 1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친환경차 공략으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전월 대비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로 가면서 감소세가 확연하다. 지난달엔 7월 대비 10% 수준 줄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고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국별로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당초 우려와 달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대응한 결과, 친환경차 판매가 미국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호조세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노려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2022년 약 5% 수준에서 지난달 55%까지 끌어올렸다.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8월 실적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대비 153% 증가한 1만4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0%를 상회했다. 유럽연합(EU, 66.2%↑), 오세아니아(40.0%↑), 중동(29.3%↑), 중남미(17.0%↑), 아시아(15.2%↑) 등 주요 시장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어섰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량은 2%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1%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13만 대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구절벽 대응따라 세계경제 지형 바뀔 것"

추경호 부총리, 중장기전략위 참석
"韓, 변화대비 중장기 전략 수립 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9일 '인구절벽' 등과 관련해 지구촌 각국의 대응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에 맞춰 우리나라가 중장기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제6기 중장기전략회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한국 경제의 도전요인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이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도 변화에 대비할 중장기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중장기전략 수립 사례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현인회의로서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비롯한 전략위원 19명이 참석했다. 또 미래 세대 의견을 대변할 기재부 청년보좌역과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글로벌 대격변기에 대응한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창의력·도전정신의 혁신역량과 소통·공감의 포용역량 등 국민의 집합적 역량 강화"를 언급한 뒤 "기여와 보상이 비례하는 공정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AI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전략위원들은 앞으로 미래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함께 △산업혁신 △인재양성 △경제안보 강화 △포용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 외부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故) 이건희 회장과 리트리버

이재용 회장, 안내견학교 깜짝 방문
현장·상생 중심 '뉴삼성' 비전 실천

19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안내견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前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삼성

SAMSUN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초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동행'에 집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상생 현장에는 자리를 지키며 '뉴삼성'을 완성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삼성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형기를 끝내고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 회장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올 초 또다시 재판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 상생현장 아낌없는 행보
SSAFY 캠퍼스 개소식 등 직접 챙겨
공채 유지… '인재 제일' 경영 지속

공판은 올 초 시작해 지난 주까지 벌써 102회째나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 삼성물산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크게 성장하면서 합병 당위성도 증명됐지만, 여전히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중 92번이나 자리를 지켜왔다. 해외 출장 일정도 조정할만큼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를 하루 빨리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첫 서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상생 현장에는 아낌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 바로 광주에 있는 협력사 디케이 방문, 이어서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은 부산 동아플레이팅을 찾는 등 동행 비전을 실천해왔다.

이 회장이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깜짝' 방문한 것도 '동행' 비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안내견 학교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영 복귀를 앞두고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약속하는 등 동행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안내견 학교가 故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 직후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이 회장이 취임 후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지만, 신경영 선언과 함께 30주년을 맞은 안내견 학교를 축하하며 '동행' 비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다른 뉴삼성 중심 철학은 '인재 제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고양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도 깜짝 등장해 수상자들을 축하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광주캠퍼스 개소식과 SSAFY 대구 캠퍼스를 빠짐없이 찾는 등 인재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구미전자공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4대그룹 중 유일하게 공개채용을 유지하는 것도 '인재 제일' 철학을 위한 조치다.

이렇듯 이 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뉴삼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으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삼성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만큼, 이 회장이 나서야 선순환 노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삼성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이 회장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 '뉴삼성' 선언 이목집중
사법리스크 해소 시기 관건
"재판으로 인해 경영행보 제한"

이 회장 재판이 언제 끝날지에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회장 취임 1년을 앞둔 상황, 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 30주년이라는 것도 '뉴삼성' 기대를 높이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복권하긴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탓에 위축된 모습"이라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한된 행보를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퍼피워커-안내견, 상생사회 이끄는 '한 걸음'

르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안내견 사회화 등 함께 훈련 수행
사회 진출 시각장애인들 길라잡이

보통의 '반려견'은 한 가정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안내견들은 고도의 훈련을 수행하며 많은 '동행인'을 만난다. 안내견학교에서 태어난 안내견은 ▲퍼피워커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홈케어 봉사자의 손을 거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수많은 훈련사가 함께 한다.

안내견 사업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만남과 이별'이 공존했다. '안내견 분양식·은퇴식'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8마리와 은퇴 안내견 3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퍼피워커는 안내견의 사회화를 위해 1년여간 가정에서 안내견을 돌본다. 안내견 후보견들은 약 1년간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을 퍼피워커들과 다니며 사회화에 집중하는 기간을 가진다.

8명의 퍼피워커들은 안내견으로 합격한 단군·단풍·대한·존경·칸토·미지·케미·쿠키를 시각장애인 파트너에게 보냈다. 예정된 이별에 퍼피워커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

케미의 퍼피워커 강희정씨는 "한 번도 강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었는데 TV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며 "케미 덕분에 사춘기 큰아들이 부드러워졌고 둘째는 활발해졌으며 저와 남편은 뜻하지 않게 셋째 육아에 들어갔다"며 케미와 추억을 회상했다.

강씨의 집에서 막내아들이었던 케미는 안내견으로 합격해 시각장애인 최경은씨에게 보내졌다. 케미와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최씨는 "무섭고 두려웠던 발걸음이 케미로 인해서 가벼워졌고 설레게 됐다"며 "이 행복을 케미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 7년가량 안내견 활동을 마친 느티·한울·해담의 은퇴식도 열렸다. 안내견 느티는 현세진 파트너 곁에서 2016년 09월부터 2023 5월까지 7년 가까이 동행했다.

느티의 여생을 함께하게 될 윤춘미 은퇴견 홈케어 봉사자는 "안내견학교에 올 때마다 이 아이(안내견)가 그저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낀다"며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들의 사랑, 훈련사의 노고, 긴 시간을 동행한 파트너가 있었기에 현재가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퍼피워킹 봉사에 참여한 가정은 현재까지 총 1000여 가구에 이른다. 지금은 퍼피워킹 신청을 하면 2년가량 대기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또한 안내견 은퇴 후 입양을 통해 노후를 함께하는 자원봉사 가정, 미래의 안내견을 낳는 번식견을 평생 돌보는 봉사 가정까지 더하면 30년간 총 2000여 가구에서 안내견 봉사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일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차보희 프로와 지니 /허정윤 기자

삼성은 안내견학교 시설과 훈련·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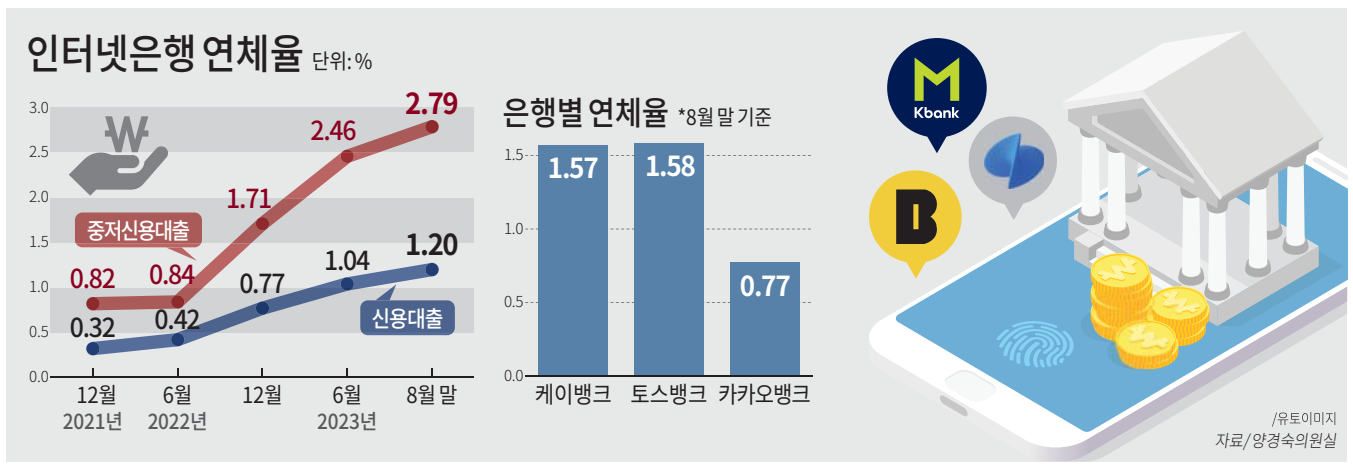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올해 견사를 기존의 2배 크기로 확장하며 안내견의 번식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꾸미는 공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파트너를 위한 교육 워크숍 횟수를 늘리고 장애인을 배려한 청각 교육자료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양과 질' 개선에도 투자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터넷銀, 중·저신용자 연체율 급등… 담보대출 비중 확대

카카오 등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신용대출보다 건전성 관리 가능
지난달 말 신용대출 연체율 1.20%
2021년 말 0.3% 수준서 4배 상승



/유토이미지
자료/양경숙의원실

올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이 급상승 중이다.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상쇄할 방침이다.

19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로 집계됐다. 2021년 말 0.3% 수준이던 연체율이 지난 2년새 4배나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1.57%, 토스뱅크 1.58%, 카카오뱅크 0.77%를 나타냈다.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6월말 0.62%로 1년 6개월간 2배가량 오른 것에 비하면, 연체율의 상승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다.

◆ 중저신용자 연체율 2년새 3배 늘어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들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79%로 집계됐다. 2021년 말 0.82%이던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6월말 기준 2.46%까지 뛰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고금리로 중저신용자 중 다중채무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은행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잔액 기준)을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카카오뱅크 28.4%,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담보대출 비중 확대

인터넷은행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고도화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장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점수 외에도 통신 쇼핑, 도서구매,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며 "매달 몇 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연체하는 비중이 낮은 통계 등 상환능력과 별개인 것 같은 데이터도 분석해보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추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비중도 늘리는 추세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신용대출을 늘리면 중저신용자 대출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돼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전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갚는 방식이다. 차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보증서 만큼 대출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대환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사를 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오를 때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케이뱅크는 청년 전세대출 외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내놨다. 대출기간 금리가 고정돼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자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토스뱅크는 이달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가입시 보증금 반환보험 신청도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돼 당분간 전월세보증금 등 담보대출 영역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이라며 "신용대출보다 건전성 관리도 가능해 금리경쟁 등 편의성을 앞세워 인터넷은행들의 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안전규제 풀어 그린수소 생산 전국 추진

산업부, 제주 수전해 실증 현장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제주 2개 지역에서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추진 중인데,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2MW) 실증 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행원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며, 12.5MW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도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차세대 수전해(SOEC 등)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 전경. /산업부

/세종=한용수 기자 hys@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지연 등 과제 해결” vs “재산신고 누락·자녀특혜 의혹”

이균용 “재산신고 미비한 점 사과 처가 재산 분배 문제로 인식 못해”

野, 비상장주식 통해 소득 계속 창출 후보 지명 안 됐다면 지나갔을 것

이 후보자 아들, 대학 학부생 시절 로펌 김앤장서 인턴… 아빠찬스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이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고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세를 쏟아내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재판 지연’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박용진 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를 시작으로 모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매우 불성실하다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당시 이렇게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시작된 주질의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나타난 재판 지연과 법관의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비상장주식을 통해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면 제대로 된 재산등록이 되겠나”라며 이 후보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됐는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내용을 신고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다”며 “법원행정처 온라인 신고망에 들어가서 신고할 때 비상장 주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고지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처가 재산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왔는데, 이 판결 하나로 무너졌다”며 “징역 6개월에 판결문이 59장이다. 민간인 (재판)에 대해 판결문을 쓸 때는 1~2장을 쓰는데, 이 판결은 논리를 만드려고 60장을 썼다. (대법원장이 되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려 3년8개월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다.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3개월 만에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 판결은 9개월만에 끝났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판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펌 김앤장에 대학 학부생 시절 인턴을 한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휴학하려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인턴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는 많으나, 별도로 공고하지도 않고 심사위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는데 ‘관심법’으로 들어갔나. 아빠찬스로 들어간 것”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넘어가고 있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안보·경제, 보수정부가 낫다? 조작된 신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퇴임 후 첫 공식석상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참석
“구시대적 이념에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 정책 방향을 지적하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퇴임 후 서울에 온 것이 처음이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며 “그 첫 행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한편으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 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확대

당정,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자가돌봄비 연 200만원 등 지원

당정이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고립은둔청년, 청년우울증, 가족돌봄청년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은 고용과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이 제시한 청년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형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자조모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우처 지원은 가족돌봄과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올해 8월부터 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교육,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2023년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230명으로 50명을 늘리고, 맞춤형 사회 관리를 확대해 1대 1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 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명의 누적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을 현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청년우울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일련된 범죄사건에 주목하고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 건강바우처 사업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3309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

SH가 잘하는 일입니다

설계도면 공개
원가내역서 공개와 더불어 SH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

자산 공개
대한민국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한 자산의 전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경영 실천

사업결과 공개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 수익 재투자 및 향후 개발방향 공개

분양원가 공개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등 총 71개 항목을 모두 공개

후분양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 실제 주택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적정임금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숙련 근로자를 유입,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택 품질 제고

고품질 주택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여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 추진

직접시공제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여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 선도

사전예약제
후분양시점(건축공정률 90%)에 본청약을 진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과 중도금 부담을 경감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변 시세의 40~60% 가격으로 주택 공급

서울특별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요양·상조업 눈독들이는 생보사 금산분리 등 진입 장벽에 군침만

생보업계, 정체된 시장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로 요양·상조업 모색

요양사업 부지 확보 부담감 높고 상조업 진출도 안돼 법 개정 필요

생명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요양·상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유토이미지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상조업 진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로 요양·상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정체된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위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양사업은 고령화 시대 보험업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꼽힌다. 여러 생보사들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초기 사업 비용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요양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30명 이상 거주하는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지와 건물 임대가 불가능하다.

매입 비용은 생보사들의 사업 진출에 부담이 된다. 시설 설립과 부지 확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도권 등 도심권에서 요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요양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했다.

상조사업도 생보사의 주요 수익확장 활로 가운데 하나다. 상조업은 코로나19에도 규모가 연간 8조원에 이르는 등 급속 성장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자체가 막혀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조업은 보험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권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업계는 최근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금융 진출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 영업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금융위는 발표 시기를 재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산분리 완화 연기로 생보사들의 상조업 진출도 지연되고 있다.

생보사들은 요양·상조 사업 확장을 위한 규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 사업에 진출하려는데 수도권 부지가 몇 백억원 규모이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KB손해보험에 이어 후발 생명보험사도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업은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지만 상조업은 보험법 시행령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사업을 검토할 지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금융사 기본금리 기재 강화에 저축은행 수신경쟁력 '청신호'

저축은행 기본금리 상단 연 4.52%
우대금리 뺀 은행권 금리보다 높아

은행권과 조달 경쟁에 어려움을 겪던 저축은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이 예적금 광고 시 기본금리를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우대금리 비중이 작은 저축은행 입장에선 수신 관련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예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기본금리 기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최고금리만 강조한 광고 방식을 바꾸도록 한 것. 앞으로 예적금 상품을 홍보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등을 동일하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저축은행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광고 표기 기준이 엄격해지면 우대금리 취급 비중이 미미한 저축은행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의 최고금리가 연 4% 선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 예적금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1년물) 상단은 연 4.51%다. 은행권의 최고금리상단인 연 4.2%와 비교하면 0.31%포인트(p) 높은 것에 그친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격차는 0.71%p로 확대된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32만원 차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상품을 홍보할 때 시각적인 비중이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광고는 신용을 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각 금융상품의 목표층, 성격 등에 따라 광고 모델을 선발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홍보물이 주는 효과가 크다"며 "상품광고 모델을 선발할 때는 이미지는 물론 평판 조회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그간 은행권의 우대금리는 '낚시광고'라며 소비자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달성 조건이 까다로워 만기 후 기본금리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에 관한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저축은행 수요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 정기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다. 최고금리는 연 4.20%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3.90%만 지급한다. 이어 두 번째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다. 최고금리는 연 4.15%지만 우대금리를 빼면 연 3.75%만 제공한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스마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기본금리에 연 4.51%를 적용한다. 이어 BNK·DH·JT·고려·동양·동원제일저축은행 등은 연 4.5%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6개월짜리 단기예금의 경우 연 4.6%의 기본금리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p 남짓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피로를 느꼈을 것"이라며 "기본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한화손보, 차병원과 여성 맞춤보험 개발 맞손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회공헌' 서울 취약층에 3년간 1억 전달
교보생명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지정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 18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사회공헌기금 나눔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맞춤 보험 개발에 나선다.

◆ 저출산 극복 서비스 마련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차병원과 '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여성 맞춤 보험상품·서비스 개발 ▲난임·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마련 ▲저출산 극복 공동 마케팅 ▲임직원 난임 관련 복지 증진 사업 등에서 협력한다.

데이터 기반 저출산·난임 문제는 물론 폐경 등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출산 후에 겪게 되는 산후·육아 우울증과 같은 부분들도 차병원과 함께 연구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3년간 총 1억원 후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 18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사회공헌기금 나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간 후원금 총 1억원을 서울시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후원금은 기부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이어주는 복지 서비스 단체인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기탁한다. 매년 약 600세대에 된장,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5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 업계 최다 4건 지정

교보생명은 '클라우드 활용 협업 툴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미러링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눈으로 보는 TM청약 지원 서비스 등 보험업계 최다인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김주형 기자

SC제일銀, 최고 3.6% 고금리 파킹통장

'제일EZ통장' 광고 캠페인 시작

SC제일은행이 첫 거래 고객일 경우 하루만 맡겨도 최고 3.6%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상품 '제일EZ통장'의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오징어게임', '킹더랜드' 등에 출연해 'K-할머니'란 별명을 얻은 배우 김영옥을 전속 모델로 기용했다. '아직도 몰라? 확실히 알자! 제일EZ통장'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미니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캠페인 영상 '국밥 마스터 김영옥 할머니의 제일EZ통장 이야기'에는 김영옥이 국밥집 주인으로 출연해 제일EZ통장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제일EZ통장의 금리와 혜택을 소개한다.

캠페인송으로는 드라마 '쾌걸춘향'의 OST 수록곡이자 노래방 인기곡인 가수 이지(izi)의 '응급실'을 채택해 상품 특징을 담은 메시지를 중독성있게 전달한다. 오는 10월에는 '응급실' 후렴구 가사를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편곡한 버전의 바이럴 영상 및 숏폼 영상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SC제일은행 광고 캠페인 영상 '국밥 마스터 김영옥 할머니의 제일EZ통장 이야기'. /SC제일은행

제일EZ통장 캠페인 영상은 SC제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일EZ통장은 일별 잔액에 2.6%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파킹 통장이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1.0%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계좌 계설일로부터 6개월 간 적용해 최고 3.6%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통장과 연계하는 거래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월10회), 공휴일을 포함한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G전자, 5년간 1兆 투입… 미디어·엔터테인먼트社 발돋움

webOS 파트너 서밋 2023

혁신·개방적 SW 플랫폼사 선언
타 TV 브랜드·제품군에 공급해
2026년까지 플랫폼 생태계 확대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webOS 파트너 서밋(Partner Summit) 2023에 참석한 webOS 개발자 및 콘텐츠 사업자 등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 TV로 webOS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전자기업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webOS 파트너 서밋(Partner Summit) 2023'을 개최했다. 세계 30개국 파트너들이 모인 가운데 LG전자는 하드웨어 제조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써 본격 선언했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아닌 다양한 세대에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춘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레드 TV 10년의 리더십과 스마트 TV 플랫폼 webOS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7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과 운송수단, 가상공간 등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솔루션을 통해 2022년 65조원(LG이노텍 제외)의 연간 매출을 2030년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webOS는 지난 2014년 LG전자가 내놓은 전 세계 2억 대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 외에도 타 TV 브랜드와 다른 제품군에도 webOS를 공급해 2026년까지 webOS 사업 모수를 3억대로 늘리는 등, 플랫폼 생태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프로젝터,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 등 타제품군까지 webO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webOS를 선택한 타 브랜드는 300개사 이상이다.

이날 조 사장은 webOS의 플랫폼 업그레이드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webOS는 다양한 외부 변화에 대응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OS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아직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 LG전자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개발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공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구형 제품도 새로운 기능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플랫폼의 핵심인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서비스 분야에 5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 중 하나는 'AI 기반 검색 및 추천 기능' 강화다. webOS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메터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자가 원하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강화한다.

서비스 사용 편의성도 높인다. 9월 말 출시를 앞둔 새로운 LG채널 3.0은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용 채널 가이드를 제공해 콘텐츠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LG채널은 전세계 27개국에 30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사용자 수는 5000만명 이상이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중 유니크 디바이스(UD, Unique Device)는 75%, 시청 시간은 57% 증가했으며, webOS 내 사용 빈도는 Top5까지 상승했다. 9월 말에는 인도에도 LG채널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주차경로 학습·원터치 원격 주차 선배

성능 개선 버전 MPS 1.0P 개발
초음파센서·SVM 카메라 융합
주차선 인식해 빈 공간서도 지원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 시연 장면. 운전자 핸들 조작없이 학습된 경로를 따라 자동 주차하는 '메모리 주차 지원', 주차선 인식 기능을 추가해 진일보한 자동 주차를 구현한 '원격 자동주차시스템 2' 등 다양한 주차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현대모비스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차량이 운전자의 주차 습관을 분석해 스스로 자동 주차를 수행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MPS·Mobis Parking System)의 성능 개선 버전인 'MPS 1.0P(프리미엄)'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술의 대표적인 기능은 '메모리 주차 지원(MPA:Memory Parking Assist)'이다. 운전자가 경로학습 모드로 주차를 실행하면 차량이 이를 스스로 학습해, 다음부터는 해당 주차공간에서 운전자가 원터치 조작만으로 자율주차가 가능하다.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의 핵심은 영상기반의 센서 퓨전에 있다. 초음파센서와 SVM(Surround View Monitor) 카메라를 융합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차량의 위치측정과 지도생성을 동시에 하는 첨단 기술도 적용했다. 로봇공학에서 유래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 100m에 이르는 저장거리를 지원하는 주행보조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지정주차구역이나 개인차고지 등이 상대적으로 일반화돼 있는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특히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학습된 주행경로로 동일한 장소에 원격 주차가 가능해져 주차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고가의 레이더, 라이더 센서 없이 초음파와 SVM 카메라만으로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을 구현했다.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 이에 글로벌 수주는 물론 일반 차량에 대한 빠른 대중화도 기대된다.

MPS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원격 자동주차시스템(RSPA)'도 업그레이드됐다. 이미 여러 양산차에 적용된 기존의 RSPA는 초음파 센서로 주차공간을 인식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버튼 하나로 직각 및 평행주차 등을 지원한다. 다만 초음파가 인지할 대상이 필요해 주차공간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영상기반 센서 퓨전을 통해, RSPA 2 버전에 주차선 인식 기능을 추가했다. 주변에 차량이 없는 빈 주차공간에서도 주차선을 인식해 자율주차를 지원한다. 현대모비스의 이 기술은 최근 기아가 출시한 전기차량인 SUV EV9을 비롯해 G90, GV60, 아이오닉 6 등에 적용돼 대중에 선뵈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완전무인 자율주차(AVP·Auto Valet Parking) 수준까지 연구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크랩주행, 제로턴 시연으로 주목받은 'e-코너 시스템' 등 도심형 자율주행 신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한 청사진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

임직원 대상 신사업 공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약 18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임직원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말까지 신사업 공모 접수와 평가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출된 임직원 아이디어들은 ▲1차 서류평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 ▲1년간의 사업 인큐베이팅 ▲최종 평가를 거쳐 회사의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내사업화나 분사창업 형태로 추진된다.

아이디어가 사내사업화로 추진될 경우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사내독립기업(CIC)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업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 핵심사업으로 성장 가능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낸다는 목표다. /양성운 기자

GS칼텍스, 국내 최초 생분해 기계톱유 출시

Kixx Chain BIO, 구성 물질 98%
유자·야자·대두 등서 추출한 지방산

GS칼텍스 Kixx Chain BIO. /GS칼텍스

GS칼텍스의 윤활유 브랜드인 'Kixx'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가치 실현을 위해 바이오 기반 윤활유 제품군을 확대한다.

GS칼텍스는 19일 국내 윤활유 브랜드 최초로 구성 물질의 98%가 바이오 기반 물질로 이루어진 고성능 생분해성 기계톱유 'Kixx Chain BIO'를 출시했다.

'Kixx Chain BIO'는 유채, 야자, 대두,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지방산을 이용해 만들어진 생분해성 윤활유로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석유계 윤활유 제품과는 달리 일정 시간이 지나면 땅속 미생물, 햇빛 등에 의해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기계톱유는 연간 약 6000드럼이 사용되는 소형 시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계톱 전용으로 만들어진 윤활유 제품이 없어, 유사한 제품 성격을 가진 석유계 엔진오일 제품이나 고가의 해외 기계톱유 제품을 사용해 왔다. 이에 국내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분해성 윤활유 제품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애경케미칼, 준불연 소재 개발 주력

FM 4910 인증 획득하며 기술력 입증

애경케미칼이 화재 안전성을 높인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애경케미칼은 각종 화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강화된 건축법과 관련법령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소재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경케미칼은 3년 여 간 고객사와 협력해 준불연 소재를 적용한 우레탄 패널을 개발하고,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준불연 시험 기준(복합자재품질인정 시험·KS F 8414)을 통과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 받았다. 애경케미칼은 복합자재 품질인정을 취득하기 위한 품질시험 4종을 모두 통과했다.

또한 2021년 11월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POLYCOAT DION-9341F) 개발에 착수해 올해 2월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애경케미칼 측은 이후 7월 화재 안전성 인증부문에서 세계 최고 신뢰도를 자랑하는 FM(Factory Mutual) 4910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애경케미칼은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 관련 난연 인증(ASTM E-84 CLASS A 등급)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최근 물류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축 플랜트 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화재 안전성을 높인 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추세를 사업 확장과 수익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해외진출 통해 유니콘社 육성… 모태펀드로 '글로벌 공략'

취임 1년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세계시장 진출 경험·역량 '자신'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 박차

"우리 경쟁력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쌓았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글로벌 공략'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갖췄다.

해외투자 유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광석화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1년이 빠르게 지나갔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추진했던 120대 국정과제에 발맞춰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와 기관 효율화를 뿌리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그러면서 유 대표는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이 벤처캐피탈(VC) 분야와 융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올해 한국벤처투자의 4대 핵심 미션으로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민간모펀드 활성화 ▲벤처투자생태계 글로벌화 ▲ESG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의 경우 그동안의 운용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인 벤처투자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펀드는 약 8조원 규모였다.

유 대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펀드에 6287억원을 출자해 총 59개, 약 8조9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한국기업에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안에 유럽사무소를 추가로 열고, 기존의 미국사무소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도 순항하고 있다.

모태펀드 민간자금 유치 승수효과는 2019년 1.58배에서 2022년 1.98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 41개 유니콘기업 가운데 37곳이 모태자펀드(5785억원)로부터 투자를 받아 추가 성장했다.

유 대표는 "모태펀드가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돼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왔고, 유니콘기업 배출 비율도 90.2%에 달하는 등 기업 성장 지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초격차펀드', '벤처세컨더리사모펀드'도 새로 만들었다. 초격차펀드는 반도체,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벤처세컨더리사모펀드는 사모시장과 연계해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 인수 또는 벤처·스타트업 구주를 인수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혁신 벤처펀드' 역시 충청·부산, 동남권(울산·경남),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등 5개 권역에서 3155억원 규모의 지역혁신모펀드와 3421억원의 자펀드 조성도 끝낸 상태다.

유 대표는 "ESG 환경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ESG경영팀을 새로 만들고 ESG경영위원회도 꾸렸다"고 전했다.

이외에 한국벤처투자는 데이터와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DX)을 통한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VC투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벤처투자 종합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T, 실내·외 유동인구 AI분석 기술 개발

'리트머스' 실내 측위 기술 결합
와이파이 등 전파 정보 통해
지역 내 전체 인구 추정 기술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건물 안 유동인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AI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에 실내 측위 기술을 결합한 AI유동인구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유동인구 분석 기술은 특정 지역 내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해 실외 이동 인구와 실내 체류 인구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SK텔레콤은 기지국,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전파 정보를 통해 실내·외 인구 분석이 가능한 딥 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리트머스에 적용해 실내 체류 인구와 실외 이동량 분석을 가능케 했다.

리트머스로 분석된 실내외 유동인구 외에 인구, 토지, 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전체 인구 추정하는 전수화 기술을 적용하며 측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였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AI유동인구 기술 측정 데이터가 실내 체류 인구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공공 인프라, 교통, 재난, 환경 등에 관련된 수요와 사업 계획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리트머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AI유동인구 기술과 데이터를 고객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AI유동인구 기술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상업 건물 일부에 적용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식 뉴스룸을 통해 AI유동인구로 분석한 데이터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부전자전' 선친 뜻 이어 소외계층 백미 기부

안성호 에이스경암 신임 이사장
성남 취약계층에 1.4억 상당 전달

아버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작고한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과 선친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에이스침대 안성호 대표(사진)의 이야기다.

1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침대 대표 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신임 이사장인 안성호 이사장이 추석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취약계층에 1억4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다. 안성호 이사장이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기탁한 백미는 10kg 짜리 5900포다. 안 이사장은 이를 시작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선친의 뜻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고 안유수 전 이사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했던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유지를 받들어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직접 나섰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고 안유수 전 이사장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이 아닌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25년째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기증해 오고 있다.

에이스경암이 1999년부터 이번 추석까지 지역 사회에 기부한 쌀은 총 14만 2460포, 무게로는 1424톤(t)에 달하는 양이다. 금액으론 34억원 어치다.

안 이사장은 선친의 뒤를 이어 최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쌀 기탁을 시작으로 지난 25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선행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시각장애인 돕는 '내비 솔루션' 개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글로벌 교통약자의 도보 이동 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현대차와 기아는 싱가포르에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도보 이동을 돕는 내비게이션 솔루션 실증사업 '유니버설 모빌리티 2.0'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니버설 모빌리티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 도시 환경과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현대차·기아가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유니버설 모빌리티 2.0은 현대차·기아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카 헤일링(차량호출) 서비스 실증사업 '인에이블엘에이'(EnableLA)의 후속 프로젝트로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도보 이동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뉴스에 AI 적용

심재호 기자 AI휴먼으로 구현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AI)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뉴스 프로그램 내 자료화면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AI가 제작한 이미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지역채널 뉴스에 AI 기술을 적용해 프로그램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AI 기술을 이용해 자사 케이블 지역채널에 방영 중인 '이시각 보도국'의 진행자인 심재호 기자를 AI휴먼으로 구현해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심재호 기자는 30년 넘게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곧 정년퇴임을 앞둔 베테랑 기자다. 케이블방송 언론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심재호 기자는 "AI 기술로 열정과 패기가 충만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AI심재호'로 지역민과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AI로 구현된 '이시각 보도국' 프로그램 속 AI 심재호 기자의 모습.

이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지역채널에 방영 중인 뉴스 프로그램 내 자료 화면에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을 연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정책토론'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토론을 펼치고 있는 가상의 인물을 포함한 이미지를 30초 이내로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구남영 기자

LG엔솔, 글로벌 그린본드 10억달러 발행

3년 만기 4억달러, 5년 만기 6억달러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 이후 첫 글로벌본드(그린) 10억 달러 발행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이 발표한 글로벌본드의 규모는 ▲3년 만기 4억 달러 ▲5년 만기 6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다.

발행금리는 미국 3년, 5년 국채금리 대비 각각 +100bp, +130bp(1bp=0.01%p)로 결정됐다. 이는 최초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비 각 40bp씩 낮아진 수준이다. 최초제시금리는 투자자들의 투자 주문 접수 개시와 함께 발행사가 공표하는 예상 발행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그린본드 사용 및 관리 계획 등을 담은 녹색금융 프레임워크는 무디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QS1(탁월)'을 획득하며 체계화된 ESG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 무디스, S&P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견고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 지위와 안정적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채권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Baa1/BBB+'로 책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글로벌본드 발행에는 3년 114개, 5년 186개 기관의 투자자 참여했고, 총 공모액의 5배에 이르는 주문이 접수됐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 리더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등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2023.9.21.(목) – 9.24.(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이민지
Minjee Lee

패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황유민
Yu-Min Hwang

김수지
Su-Ji Kim

리디아고
Lydia Ko

박지영
Ji-Young Park

박민지
Min Ji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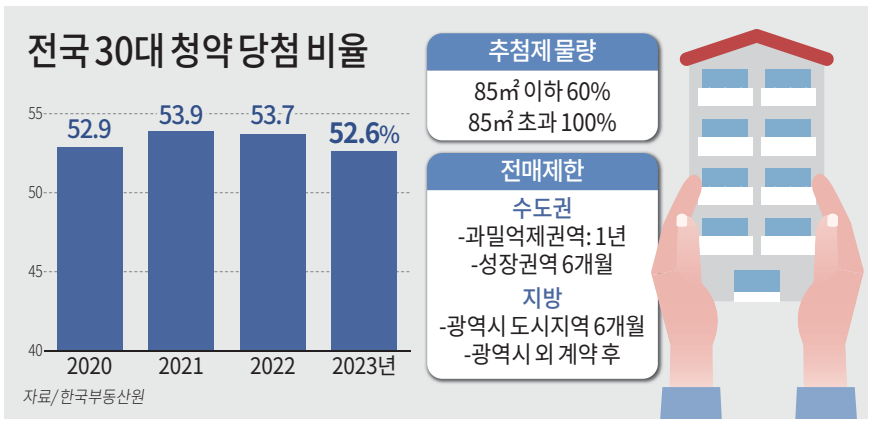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벤처스 | 핀크

주 관 : KLPGA 방 송 : SBS Golf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A'REX Airport Railroad 기획/운영 : Prain

규제완화 효과… 올 아파트 청약 당첨자 2030이 '절반'

중장기적 자산가치 상승 기대 분석
서울 30대 전체 비중 56% 차지
추첨제 비율 높아진 것 영향 분석



2030세대의 청약통장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도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젊은 세대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새 아파트가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등 매년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

최근 청약 열풍의 중심인 서울에서도 30대 비중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2020년~2023년 30~4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19일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집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여기에 분양가까지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6개월이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분양 소식이 들리는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분양물량으로 ▲대우건설은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84·103㎡ 433가구, 아산 탕정지구에서도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59~84㎡ 1626가구를 선보인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535가구 중 44~84㎡ 263가구 ▲롯데건설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84·108㎡, 372가구 ▲태영건설은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733가구 중 37~98㎡ 532가구 ▲포스코이앤씨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84~165㎡, 1401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주주 권익보호 위한 정책적 개선 필요"

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개최
주주행동주의·기술주 이슈 논의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주최한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에서 주주행동주의 측면에서의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주주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세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등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주최한 '한국투자의 힘 투자세미나'에서 던진 화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9일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투자의 힘 투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주행동주의와 기술주 상승 등 국내 주식시장 내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주환원의 중요성… 기업 거버넌스 개선돼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환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주행동주의 투자 영역의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24건에 불과했던 주주제안 수는 개인 투자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 2021년에는 315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주주와 개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시가가 공정가치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높더라도 저평가시킬 수 있으며, 주주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주주행동주의 활성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규정한 우리나라 상법 및 판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3부 발표를 맡았던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3부장도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정책 및 기업 세대교체 시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주주환원 여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이라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기조 변화는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IT·반도체 산업… 테크 주식 투자는 어떻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올 상반기에는 인공지능(AI)과 메모리 사이클의 바닥이 중첩되면서 반도체주가 급등했지만, 하반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스마트폰과 PC, 일반 서버의 수요가 회복되며 전공정 관련주의 키 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정보기술(IT) 및 반도체 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이날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네 가지 요소 중심으로 미래를 조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한다면 AI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AI가 전기,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화 될 것"이라며 "수많은 생산성 혁신을 일으켜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학개미, 반도체 등 기술주 상승 '기대'

해외주식 Click

시장서 반도체 업황 반등 예상
엔비디아 4583만달러 매입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 등 기술주가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상승에 베팅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반등을 예상하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9월 12~18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SOXL)다. 1억2257만달러가 몰린 이 ETF는 ICE 반도체 지수 상승 시 3배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또한 서학개미들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를 4583만달러어치 매입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순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3% 넘게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4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반등을 보인 점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론에 대해 도이체방크가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 종료를 이유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해 관련 종목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학개미는 최근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들도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에 나섰다. 서학개미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QQQM)를 4534만달러어치 순매수했으며, 최근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에 조정을 받은 애플도 4533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애플은 지난 12일 아이폰15를 출시했음에도 주가는 지난주 2.43% 하락했다.

글로벌 비만 신약 랠리로 급등했던 제약사에도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서학개미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각각 2747만달러, 1255만달러 순매수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재건축·재개발 통한 '신흥주거타운' 공급

인프라 등 생활여건 유리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나는 구도심 지역에서 대형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그동안 노후지역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된 지역이 인프라 등 생활여건, 입지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다는 학습효과로 인기가 높다.

신흥주거타운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구도심 개발과 택지지구·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신도시 개발이 있다. 택지지구·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신흥주거타운은 아파트 공급 후에 인프라가 조성돼 초기 몇 년 동안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흥주거타운은 지역 내 대표적인 원도심인 만큼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입주 후 모든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흥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59~114㎡, 1384가구 중 391가구를 일반분양 중이다. 단지는 광안리 삼익비치타운~남천자이~W아파트~LG메트로시티 등 광안대교 남단의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이규성 기자 peace@

증권사에 사익추구 행위 등 근절 주문

금감원 "잘못된 영업관행 끊어라"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면 워크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성과보수체계와 랩·신탁 영업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과 관련해서는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했고, 점검 결과 확인된 개선 필요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을 유도했다.

랩·신탁 영업의 경우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공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탤런트 이 경영

AMAS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샵인샵/한평샵/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쑤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지난달 전력피크 때, 원전 최대가동 공급 기여도 23.4%… 7년來 최고치

올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 93.6GW
원전발전량 21.9GW·가동기수 21기
태양광 발전량 2.5GW로 크게 늘어
재생에너지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

지난 여름 전력피크 발생때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해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17시, 93.6기가와트(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전력피크 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원전 발전량 21.9GW, 가동기수 21기로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는 23.4%로 2016년(23.6%) 이후 최고다. 이는 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

하지만 피크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신재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피크(7월7일 17시) 때는 1.0GW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며 "7월 장마 직후 8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으나,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올해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피크시 발전원별 발전량 및 피크기여도〉

	원전·가동기수		석탄	LNG	태양광	합계
2022년	20,500 (22.0%)	20기	30,751 (33.1%)	35,364 (38.0%)	973 (1.1%)	92,990 (100%)
2023년	21,903 (23.4%)	21기	29,668 (31.7%)	34,958 (37.3%)	2,510 (2.7%)	93,615 (100%)

피크시 원전가동·정지 호기 : (2020년)16·8기→(2021년)18·6기→(2022년)20·4기→(2023년)21·4기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횟집·이자카야, 日 수산물 원산지 속여 판매

수품원, 국내산 거짓표시 업체 발각

일본산 도미와 가리비 등의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횟집·이자카야(일본식 술집) 등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강원 삼척의 A업체(횟집)는 수족관에 보관돼 있는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수품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강원 삼척의 B업체(횟집) 또한 지난 13일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C업체(음식점)는 일본에서 들여온 참돔을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해 오다 11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의 D업체(음식점)는 5일 일본산 활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합해 표시했다.

서울 강남구의 E업체(이자카야) 또한 참돔요리를 팔면서 일본산임에도 국내산·일본산으로 나란히 표시해 이달 1일 단속반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경기 수원의 F업체(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합했다. 이 음식점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활참돔은 일본산으로 밝혀졌다.

수품원은 원산지를 혼합해 명기하는 경우(혼동표시)도 거짓표시로 간주하고 있다. 이달 중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된 일본산 활어의 경우, 상당량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8월 24일 이후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충남 예산 소재 G업체(수산업)는 이달 6일 중국에서 들여온 냉장 농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충남 논산의 H업체(음식점)는 보리굴비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변경한 사실이 5일 드러났다.

방류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의 I업체(수산업)는 어시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국산·북한·러시아로 병기했다. /세종= 김연세 기자

생명과학·환경 등서 신규직업 156가지 생겨

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등재
초고령사회에 따른 관심 증가 원인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생명과학과 화학, 에너지·환경, 건설, 농림어업 분야에서 새로 생겨난 직업 156가지를 '한국직업사전'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신규직업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술 발전 및 지능정보기술 접목 등에 따라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발굴연구원을 비롯해 정밀화학포뮬레이션연구개발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유기재배원, 자립지원전담인력 등이다. 신규직업이란 한국직업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직업으로, 직업세계 변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신생직업을 포함, 이미 생겨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직업을 가리킨다.

정보원은 "이번에 등재된 신규직업은 초고령사회로 향해감에 따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했다"며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전 및 지능정보기술 접목, 정부의 정책지원 등의 요인이 상호 연계되면서 직업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개발 투자 증가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활성화됐고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바이오의약품후보물질발굴연구원 ▲바이오의약품공정개발연구원 ▲임상데이터매니저 등의 직업이 나타났다.

또 환자보호 및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자안전법, 수도법 등 관련 법제도 신설 및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전담인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이 생겨났다.

이 밖에 가파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자립지원전담인력(청년자립지원 및 금융소비자 권리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도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정보기술이 생명·건설·농업 등 전 산업에 접목되는 등 직업세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도 나타나고 있다"며 "진로준비 차원에서 이들 직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 등재 직업은 워크넷의 직업진로 메뉴인 '한국직업사전'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재예방 우수 건설업체에 경제적 지원

안전보건公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지난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를 할인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0.1%(포인트)p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돼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조, 결산결과 공시 시 세액공제 혜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1일 개통)에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조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가 대상이다. 또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3만여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 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세종= 김연세 기자

농협 '심우주' 출시 첫 날 1600병 판매고

치즈 부산물 유청 활용 제품

농협 축산경제는 범농협 최초 치즈 가공 부산물인 유청을 활용한 전통주 '심우주'가 출시 하루만에 1600병의 판매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심우주(心牛酒)'는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유청에 '푸드 업사이클링' 이라는 새로운 소비가치를 부여한 농협축산경제 사내벤처반의 첫 번째 제품이다. 작년 사내벤처 아이템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우주(牛酒)사업에 범농협 육성지원을 더해 탄생했다.

'심우주'막걸리는 아스파탐(인공감미료)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100% 국산 농축산물인 김포금쌀과 임실치즈 유청을 활용한 농협경제지주의 첫 전통주로 유청의 진한 고소함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농협은 유청의 깊고 풍부한 맛을 살렸다는 의미에서 제품명도 '심우주'라고 지었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심우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판로 개척과 홍보로 지금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

MONTES ALPHA
ESTATE BOTTLED - PRODUCT OF CHILE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2020
D.O. VALLE DE COLCHAGUA • CHILE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전화 설치… 학교 방문땐 예약 필수

서울시교육청, 교원보호 종합대책
행동중재전문관 일반학교 투입
민원상담, 챗봇으로 단순문의 해결
1 학교 당 1 변호사… 법률 자문 도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모든 학교에는 담당 변호사가 지정돼 교권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때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순 반복 민원은 시교육청이 개발한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시교육청이 지난달 2일 긴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시교육청은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 행동중재전문관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인력 배치

교육청은 우선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교실 분리'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지도 단계를 제시할 구상이다. 내달 개발 완료를 목표로 분리 방식, 분리 공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행동을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인력도 양성해 파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년간 쌓인 특수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 방식을 일반 학교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PBS' 전문가는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동중재전문관'이 마치 오은영 박사가 부모를 지원하듯 교사를 컨설팅한다"라며 "현재 본청에 2명 배치돼 있지만, 내년 3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4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중재한다. 교육청은 내년 1학기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양성해 희망하는 13개교에 2학기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긍정적행동지원가는 퇴직 교원을 연수를 통해 활용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내년 3월 총 33명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6년 22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챗봇이 단순 민원 담당…학교마다 변호사

학부모 민원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상담 챗봇은 학사일정, 입학, 현장체험학습 등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담당한다.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1396 상담원을 연결해 1대1 채팅 혹은 전화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교내 유선 전화에는 녹음 기능을 갖춘다. 시교육청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하면, 학교별 카카오채널을 통해 예약 후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예약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별도 상담실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을 감지한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춘다.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필요할 때마다 법률 자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신설한다.

/글·사진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능·모평 출제교사 24명, 학원에 문항 판매했다

교육부, 교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322명 접수… 24명 고소·수사의뢰
4명, 수능 업무방해 혐의 즉시 고소

교육부가 지난 달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총 24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교육부가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달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공 고도제한 완화' 요청

건축물 높이 제약에 도시 발전 더뎌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면담은 의장 집무실에서 35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1@

파주시, '똑버스' 이용자중심 서비스 개선

대기장소 수 조정 등 불편 해소

파주시는 누적 사용자 40만 명을 돌파한 똑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범사업에 최초 선정되어 지난 2021년 12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대상으로 운행을 개시한 '파주 똑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 구역이 넓고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똑버스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똑버스는 최초 9대로 운행을 개시했으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예비차 1대를 투입해 현재 1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심야 대중교통수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24시까지였던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해 25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경기교통공사('똑타' 앱 운영사) 및 현대자동차(앱 개발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수요에 따른 '똑버스 대기장소 수 조정' ▲신도시 입주 진행됨에 따라 기존 가상정류소를 노선버스 정류장으로 통폐합하는 '가상정류소 미운행'을 9월 중 실시 완료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현황 분석 및 점검 등 '똑타' 앱을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상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로켓배송 입점하면 대만 진출… 소상공인, 157조 판로 활짝

쿠팡,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설명회

"제품관리부터 빠른 배송, 고객응대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쿠팡의 새로운 '원스톱' 수출 모델로 157조원에 이르는 대만 유통시장으로 판로를 넓힐 가능성이 열렸다."

경제성장 위축, 포화상태의 국내 시장, 중국 경기 둔화 등 국내외 성장 판로가 막힌 전국 중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쇼핑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참가신청을 한 전국 중소상공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쿠팡의 대만 진출 설명회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3차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쿠팡이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소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이다.

설명회에선 먼저 쿠팡의 해외 사업 담당자들이 대만 시장 분석, 쿠팡의 '대만 로켓배송'과 '로켓직구' 서비스, 쿠팡의 대만 진출 프로세스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230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만의 인구 밀도는 1㎢당 673명으로 한국(515명)보다 높다. 유로모니터 등에 따르면 대만 유통시장 규모(소매판매액)는 지난해 3조6344억 대만달러(약 157조원)에 이른다. 대만의 2022년 온라인 쇼핑거래 규모는 지난 2017년 대비 2배로 커졌지만,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낮았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쿠팡 수출팀 고재헌 부장이 지난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에서 대만 진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쿠팡

17개 지차체 등서 200여명 참석
현지 온라인쇼핑 거래 14% 불과
진출 상품중 소상공인 판매 70%
'쿠팡앱' 대만 쇼핑앱 다운로드 1위
판매사 '내아이애' 올 매출 10배↑

쿠팡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만 시장에 지난해 10월부터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선보였다. 빠른 배송·합리적인 가격·다양한 셀렉션을 내건 쿠팡 앱은 진출 6개월 만에 대만 현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 1위로 등극했다.

김진국 쿠팡 상무는 "대만에 나간 수백만개 상품 가운데 소상공인 판매자 비중이 70%에 이른다"며 "식품·뷰티 등 다양한 분야 중소상공인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유기농 쌀과자업체 '내아이애'는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액이 10배 늘었고, 올들어서만 쌀과자 4만 세트가 팔렸다. 뷰티업체 '방앗간화장품'도 대만 로켓배송 판매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50% 늘어났고 수출팀 포함 직원 1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날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발표 후 수출 상담을 받았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향후 수출 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은 쿠팡의 '원스톱 수출' 모델이었다. 쿠팡은 대만에 진출할 때 물류, 통관, 번역, 고객서비스, 마케팅을 모두 도맡으며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쿠팡 수출팀 고재헌 부장은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은 '직수출'을 위해 통관부터 상품 보관, 상품 페이지 번역, 마케팅과 택배배송, 고객 응대를 모두 도맡는 부담이 컸지만, 쿠팡은 로켓 입점만으로 중소상공인이 대만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 사이에선 경기침체와 중국 수출 둔화 등 악재 속에 쿠팡의 대만 로켓직구·로켓배송 모델은 별도의 현지 인력 채용·법인 설립·바이어 설득 같은 부담이 없는 신성장 수출 모델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건강즙 업체 유기농마루의 김상범 대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판로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답은 해외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건강식품업체 비아젠의 정성훈 대표는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오픈마켓 업체 등에 진출하고 싶어도 별도 수출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원스톱 수출 모델은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대만 로켓배송·로켓직구는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진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확신한다"며 "쿠팡의 대만 진출이 국내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K열풍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올리브영 '모바일 선물' 이용 4050세대 급증

서비스 성장율 연평균 176% 달해
상반기 40대 이상 주문액 18배 급증

CJ올리브영이 지난 2020년 도입한 '올리브영 선물하기' 서비스가 지난해까지 연평균 17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4050세대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모바일 선물하기 주문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 회원이 주문한 금액이 지난 2020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주문금액 신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핵심 고객인 MZ세대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4050의 선물 구매가 크게 늘며 이용 연령대가 확장하는 추세다.

아울러 올해 선물하기 주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프리미엄 화장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특히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이뮨샷', '프레스샷 올인원 토탈 영양 앰플' 등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샷 형태의 비타민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모로칸오일 ▲헤라 ▲에스티로더 등 비교적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들을 많이 주문했다.

무엇보다 연령대별로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2030의 경우 중소기업 브랜드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개성이 강한 콜라보 상품이나 인디 브랜드의 가벼운 색조 화장품을,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브랜드 이름값이 확실한 프리미엄 화장품과 건강식품 선물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올리브영은 오는 30일까지 공식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추석 기프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건강 ▲뷰티 ▲센스 ▲스몰럭셔리 등을 키워드로 선물에 적합한 250여 종의 추천 상품을 선별해 제안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광동제약, 한정판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

쌍화 침향환·녹용 쌍화정 등 구성

광동제약은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를 한정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는 오랜 시간 사랑 받아 온 광동제약 쌍화음료의 브랜드 가치를 계승한 한정판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한정판 제품은 침향에 녹용, 쌍화 농축액 분말과 엄선된 14가지 국산 원료를 넣은 '쌍화 침향환', 광동의 노하우가 담긴 쌍화 원료에 청정 뉴질랜드산 최상위 SAT 등급 녹용의 발효농축액, 6년근 인삼 농축액을 배합한 '녹용 쌍화정', 9가지 원료로 진한 쌍화 맛을 그대로 구현한 '쌍화티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통 자기 브랜드 광주요와 컬래버레이션한 '광주요 미각 설백 복주머니형 2인 다관세트', 서울무형문화재 손대현 장인이 직접 디자인한 '귀갑문 약수저'를 더해 음용 시 품격을 높였다.

광동제약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는 고급스러운 2단 목함에 각 제품을 정성스레 담아 전통원료인 쌍화에 대한 자부심과 프리미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총 300세트가 한정 판매되며, 현대백화점 일부 매장 식품관과 광동제약 F&B 전용몰 광동상회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청정원, 헬시플레저 신제품 3종 출시

그레인보우 닭가슴살·단호박·소고기

대상 청정원이 소비자들이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려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청정원은 신제품 ▲그레인보우 닭가슴살 ▲그레인보우 단호박 ▲그레인보우 소고기 등 총 3종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원 '그레인보우(GRAINBOW)'는 귀리, 렌틸콩, 퀴노아 등 다양한 잡곡과 고기, 채소 등 원재료를 담아낸 제품이다. '그레인보우'라는 이름도 '잡곡(GRAIN)'과 '무지개(RAINBOW)'의 합성어다.

그레인보우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재료를 일일이 준비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에 단 4분만 조리하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아울러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있게 갖췄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CJ ONE'

메가MGC커피와 맞손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CJ ONE이 메가MGC커피와 손을 잡고 회원들의 일상 속 혜택 강화에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난 18일 메가MGC커피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멤버십 제휴, 시스템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번 달 초 CJ ONE은 13년 만에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며 '반짝이는 일상(Everyday Sparkle)'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멤버십 포인트 등을 새롭게 보였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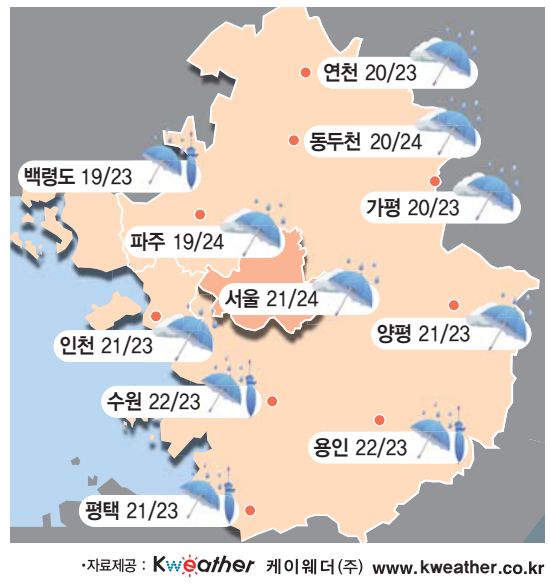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8 | 해짐 / 18:33

9월
20일(水)
음력 : 8월 6일

수도권 날씨
21~2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아! 좋은 세상

이 규 성 의
전원에 산다

벌초하러 고향가는 길, 나와 아버지는 연례행사 처럼 서해대교를 건넌다. 마침내 다리 위, 올해도 아버지는 말하신다. "참 좋은 세상이다. 차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날을 살 줄이야." 사실 이 말은 인천대교를 건널 때도 하신 적 있다. '좋은 세상이라니' 내게도 그런가.

한식, 추석과 설 명절. 대개 아버지와 내가 서해대교를 건너는 때다. 그 외에도 고향 친지 등을 만나기 위해서도 다리를 건넌다. 서해대교 개통 이전 명절 때 10시간은 보통, 다리가 생기고는 평소 한시간이면 고향에 닿는다. 간혹 석양무렵 바닷길을 붉게 물들인 장엄함이란….

아버지와 이 다리를 건넌 이력은 벌써 20여년전째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 아버지는 시골에서 분당으로, 나는 서울에서 곤지암으로 각각 주거를 옮겼다. 아버지는 환갑 한참 넘은 나이에 신도시민이 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등졌고, 나는 산골로 살러 왔다. 그후 두어해 지나고부터는 이렇게 귀향길을 동행하며 '좋은 세상 타령'을 나누고 있다.

처음부터 다리를 건넌 건 아니다. 서해대교가 생기기전 한동안 삽교천방조제길로 고향엘 오갔다. 방조제길 이후 바다 위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건너는 여정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금 아산만 일원은 생산량, 물동량, 기업 및 창업수 등에서 울산을 육박할 정도로 번성, 풍경마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곳곳에 국가공단, 지방산단 등은 물론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고 마을마다 공장이 늘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길을 헤멘 적도 여러번이다. 대개 자동차, 제철, 배터리, 전자, 에너지, 화학 등 여러 연관산업을 망라해 공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청년시절 아버지는 염전의 염부였다. 바닷물을 끌어다 말리고, 햇빛에 구운 소금을 끌고, 다시 지게로 짊어지고 나와 창고에 부리고. 고된 노동과 피땀 어린, 징글맞은 그 바다다. 그런 당신에게는 감동이라니. 하여튼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인지 몰라도 내게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속으로 되뇌인다. '아버지와 나는 왜 다른 세상에 함께 사는건가요?'.

올해도 벌초하러 가는 길, 서해대교를 건너며 아버지는 또 똑같은 감격을 토로하셨다. 그리고는 10년 후, 20년 후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한동안 멍했다. 아버지는 또 "이 다리, 우리 당진 사람이 놨댜"고 하신다. 다리가 완공돼서 고향사람들을 초대, 잔치도 했단다. 진짜인지, 지어낸 말인지. 어쨌든 당진 사람이 20리 바닷길에 다리를 놨다는 전설 하나가 지어진 거, 생길만도 하긴 하다. 아니면 당진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그걸로도 감격해하는 아버지 모습도 나쁘진 않으니.

총연장 7310m. 서해대교는 물동량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부자의 한 세월도 너끈히 건너주고, 이어주고 있다고나 할까. "아버지. 이 다리는유. 엄청난 지진이 와도 끄떡없고유. 태풍이 와도 미동도 없대유." 아버지의 감격을 더해주느라 겨우 맞장구친 말이다. 나의 어설픈 리액션에 '그려이~'하고 놀라시는 모습도 여전하다.

나도 내 아들과 서해대교를 오가게 될 거다. 그땐 무엇으로 나는 '좋은 세상'타령을 하게 될지, 아무튼 나는 서해대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이니 나도 그렇다고 하자. 다만 더 오래 아버지와 여길 함께 건너다니고 싶다.

/peace@metroseoul.co.kr

대법원장 후보자님,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을 대표하는 인사이기에 높은 도덕성과, 누구보다 엄격한 자질이 필요하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과 논란이 많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로펌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의혹, 자녀 해외 재산 누락 의혹, 성범죄자 감형 논란, 배우자 증여세 회피 등 하루가 다르게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게 치명타는 재산 부실신고 논란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총 10억원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항으로, 공무원은 해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해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음에도 재산 신고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 일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10억원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고 2020년에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액 가액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후보자도 이를 인식한 듯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신 신고 누락을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할 생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하면서 법과 원칙 따라 생활했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동에 '법과 원칙'을 떠올릴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pth7285@

오늘의 운세

9월 20일 (음 8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힘든 일을 처리. **48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니 말조심. **60년생**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는 일마다 거칠 것이 없다. **72년생** 여러 곳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니 욕심이 지나치다. **84년생** 신용이 가장 큰 자산임을.

37년생 항상 태양은 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49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해결. **61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73년생** 들고 나는 시기가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85년생** 베풀라 부자가 10년생 가기 어렵다.

38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 **62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7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8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39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항상 신중. **51년생** 용될 고기는 모이 철부터 안다는 교훈. **63년생** 최소한 내가 모른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75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은 버려라. **87년생** 친구와의 여행이 건강을 좋게 한다.

40년생 너무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은 먼 곳의 일보다 더 모를 수 있다. **52년생** 장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루. **64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 **76년생** 삼재이니 투자는 좀 더 생각. **88년생** 언쟁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결과.

41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53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65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주의. **7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89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베풀자.

42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54년생** 답답하지만 현상유지가 최선. **66년생** 자녀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을 줘라. **78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90년생** 다툼이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43년생 변동이 있어도 앞만 보고 전진. **55년생**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금물. **67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79년생** 공로와 허물이 반반이니 상대에게 신경질내지마라. **91년생** 돈 자랑 하려거든 좀 베풀고 하라.

44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5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허물도 튀어나오니 법. **68년생**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80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92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45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57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69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다. **8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라. **93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6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8년생**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70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82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한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 **94년생** 친구의 투자요구는 손실로 이어짐.

47년생 삶은 달걀도 껍데기를 까는 방법이 있다. **59년생**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붉은색 옷을 입어보라. **83년생** 떡방아소리 듣고 김칫국 찾지 않도록. **95년생** 해 저무는 강가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

김상회의 四季

베품이 곧 기도

복은 증장되고 액운 없는 인생 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모진 일도 당하지 않고 험한 일도 만나지 않는 인생 누구나 그런 삶을 원할 것이다. 좋은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해도 상대적으로 인생의 풍파가 덜하다 뿐이지 근심걱정이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액운과 고통은 없고 재복과 건강이 충만한 삶을 희망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인가, 삼국시대부터 불교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절에서도 이런 저런 명목의 기도들이 많지마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도 샤머니즘 전통이었기에 지금도 무속적인 굿과 기도 역시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서양의 종교가 전래된 것인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천주교만 봐도 이런 저런 명목의 기도가 많은 것을 보면 액운을 피하고 복을 구하고자 하는 피흉취길의 DNA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팔십이 다 되어가는 어느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할머니는 자손들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가 자신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명이 늘어나 백이십세를 산다고 예측하는 시대지만 이미 칠십 후반을 넘어가는 나이라면 자신이 건강하게 노년을 잘 챙겨야 하는가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본다. 즉 내일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방점을 찍어야 하는 시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 된다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어려움에 위로의 마음을 함께하며 베풀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간다면 이 역시 자손들을 위한 훌륭한 기도이자 공덕이 된다고, 그 할머니께도 드렸던 말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9			
6								4
		7		6		3		
8			7		6			5
		6		9		4		
4			3		1			2
		3		8		6		
1								7
			5		4			

						5		8
		4			6	1	2	
	8	2			7		6	9
				7	2	6	3	
			3		5			
	6	1	8	4				
9	5		6			7	1	
	4	6	7			8		
7		3						

정답

9	3	2	4	1	5	8	6	7
7	8	5	2	3	6	4	9	1
1	4	6	7	8	9	3	5	2
2	6	8	1	5	3	9	7	4
3	7	4	8	9	2	6	1	5
5	1	9	6	4	7	2	3	8
8	1	3	5	6	4	7	2	9
4	2	7	9	1	3	5	8	6
6	5	7	9	2	8	1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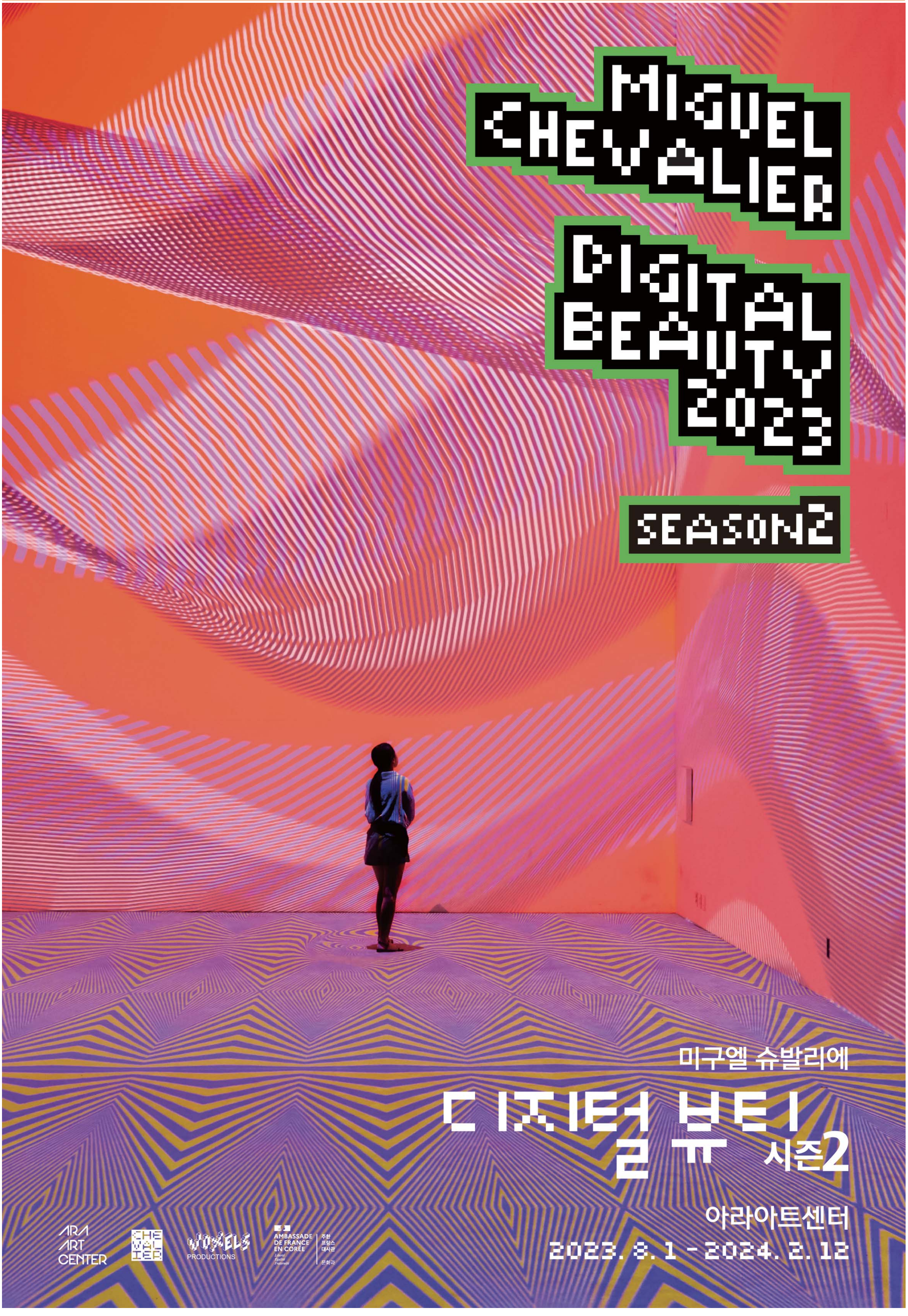
6	9	4	8	2	5	3	1	7
3	5	8	1	9	7	6	4	2
2	1	7	4	3	6	9	5	8
5	7	2	9	4	8	1	6	3
1	8	3	6	5	9	7	2	4
7	2	1	3	6	4	8	9	5
9	6	4	2	8	1	5	3	7
4	3	5	7	1	2	6	8	9
8	4	6	5	7	3	2	9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IGUEL CHEVALIER
DIGITAL BEAUTY 2023
SEASON2
미구엘 슈발리에
디지털 뷰티 2023 시즌2
아라아트센터
2023. 8. 1 - 2024. 2. 12
ARA ART CENTER
PROJECTIONS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안전·신선은 '기본'
친환경·가치소비 '플러스'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 전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올해 한가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일부 진행되면서 물가 상승에 맞게 상품 가격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프리미엄 고기, 과일, 견과류 등 20만~30만원 대를 웃도는 상품군이 다양하게 출시되는게 앞서 배경을 설명한다.

반면, 편의점 제품으로 제사상 차리기 등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진 상품들도 눈에 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먹거리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동물복지, 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상품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환절기를 대비해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제품들도 인기가 높다. 올해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상품군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는 식품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변화 등을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제품에 대해 판매가의 3배를 보상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안전하고 신선하게 집앞에 도착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

롯데백화점

20만~30만원대 상품구성 확대… 미경산 한우 등 선봬

프리미엄 선물세트

바이어 엄선… "가장 좋은 것 준비"

롯데백화점이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19일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20~30만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탄소, 동물복지, 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도 기울인다.

우선, 롯데백화점 바이어들이 엄선한 유일하고 희소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도 기획했다. 대표적으로 16년에 걸친 연구 끝에 15가지 원료를 배합해 40℃에서 3일간 화식 배합 후 6개월간 발효와 숙성을 거친 사료를 먹인 미경산 한우로 구성한 상품을 선보였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만~30만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축산의 경우 20만~30만원 품목 수를 전년보다 약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모델컷 /롯데백화점

윤우욱 롯데백화점 푸드부문장은 "예나 지금이나 선물은 소중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자 표현"이라며, "행복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길 기원하며 보내는 선물이 받는 이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에 세심하게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현대백화점

"저탄소·무항생제 한우로 가치소비 실천 하세요"

친환경 한우 선물세트 5종

'다움농장 동물복지 한우' 등 구성

현대백화점이 올 추석을 맞아 '환경친화적 한우'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치소비' 트렌드가 중장년층으로 확산된 데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을 오는 29일로 정하고,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친환경 한우 선물세트' 5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현대백화점은 '동물복지 유기농 한우세트'를 선보인다.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으로 인증받은 전남 해남군 소재 '만희농장' 한우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이 한가위 선물로 유기농 한우 세트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다움농장 동물복지 한우세트'도 눈길을 끈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다움농장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방목 한우 생산 농장으로, 이곳 소들은 곡물 사료가 아닌 목초를 섭취하는 그래스페드(Grass-fed) 방식으로 키워 고소한 맛이 덜한 대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저탄소 한우 선물세트'를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무항생제 한우 선물세트도 눈길을 끈다.

임현태 현대백화점 신선식품팀장은 "가치소비 트렌드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먹거리를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이마트

과일·캔햄 등 '저탄소·복지' 친환경 상품 확대

'가치소비' 선물세트

고품질 '저탄소 인증 과일' 등 할인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올 추석에도 '가치소비' 관련 선물세트가 부상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올 추석에는 대표적인 가치소비 세트인 저탄소 과일세트 물량을 작년 추석 대비 20% 늘렸으며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25% 할인한다.

이마트는 까다로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도 우수농가 선별을 위해 친환경 과일 전문유통사 및 베테랑 농가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대체산지까지 발 빠르게 확보하며 고품질의 저탄소 과일을 수급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저탄소인증 사과/배/샤인세트(사과6입, 배2입, 샤인머스캣2입)' 등이다.

이마트가 한가위 할인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탄소인증 사과·배 세트 /이마트

가공세트에서는 '자연주의 유기농 참기름/참깨 세트' 물량을 30% 늘렸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동물복지 캔햄,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캔햄과 캔참치 세트 등을 20~30% 할인해 2만~3만원대에 판매한다.

윤샘이 이마트 자연주의 바이어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이마트도 관련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개발 중"이라며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 선물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명절 때 가치소비 세트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롯데홈쇼핑

'팔도대잔치' 콘셉트 특집 방송 편성

'추석 마음 한 상' 특집전

프리미엄·친환경 상품 대량 확보

롯데홈쇼핑은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추석 마음 한 상'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고급 농수산물, 가정간편식부터 친환경 식품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기 연휴 대비 식품 편성 확대 ▲고급 한우·수산물 물량 및 품목 확대 ▲프리미엄 선물, 친환경 상품 물량 대량 확보 등을 전략으로 내세워 준비했다.

산지 생중계, 연예인 출연 등 방송 볼거리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추석 행사는 '팔도대잔치'를 방송 콘셉트로 삼고 전국 농수산물 산지에 PD, 쇼호스트들이 직접 방문했다. 농수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모습을 촬영해 상품 소개 영상에 활용하고 현지 생중계도 진행한다.

롯데 홈쇼핑은 식품, 리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안 천일염', '청송 고춧가루' 등 명절 준비를 위한 국내산 식재료부터 감태 선물 세트, 청도 반건시 등 지역 특산물도 소개한다.

대표 리빙 프로그램 '최유라쇼'에서는 생선, 해조류 등 국내산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명절 선물 준비에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원료, 제작 방식, 포장지 등에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해외 고급 식재료를 한정수량 확보해 계속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강재준 롯데홈쇼핑 상품본부장은 "명절을 맞아 준비한 '추석 마음 한 상' 특집전에서 고급 한우, 수산물부터 친환경 상품, 해외 직수입 식재료 등 명절 인기 식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추석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고품질 먹거리와 풍성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며 고물가 속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골든블루

골든블루가 이번 한가위 선물로 '골든블루 사피루스 세트',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세트'를 선보였다 /골든블루

"'하이볼'로 명절 분위기 띄우세요"

사피루스·다이아몬드 세트 2종

특별 술잔 제공… "소비자 니즈 반영"

골든블루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골든블루 선물 세트' 2종을 한정 출시했다.

골든블루는 19일 한가위 선물세트로 '골든블루 사피루스 세트',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세트' 등 총 2종으로 차별화된 패키지와 함께 세트별로 특별한 술잔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먼저 '골든블루 사피루스 세트'는 450ml '골든블루 사피루스' 위스키 1병과 하이볼 글라스 1개로 구성했다. 이전에 출시했던 세트의 경우 온더락 글라스를 제공했으나 최근 하이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하이볼 글라스를 패키지에 담았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세트'는 450ml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위스키 1병과 스월링(Swirling) 글라스 2개로 구성했다. 스월링은 위스키를 잔에 따른 후 공기와 섞어 위스키 속에 잠자고 있던 향을 발산시키기 위해 그 잔을 둥글게 돌려주는 행동을 말한다.

골든블루는 패키지 디자인에도 새롭게 변화를 줬다. 신뢰와 명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다크 네이비 컬러와 혁신과 도전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를 각각의 패키지에 적용해 브랜드 철학을 표현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였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번 골든블루 선물 세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GS리테일

재테크·여행·명품주류 등 800여종 상품 준비

선물세트

'체리슈머·하이엔드' 구성

GS25가 2023년 추석을 맞아 총 800여종의 명절 선물 상품을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 속 '체리슈머' (최대 효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 트렌드에 맞춰 가성비 있는 선물 세트 구성과 사전 파격 행사를 강화했다.

최고급 상품을 추구하는 특수 수요에 맞춰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한정판 하이엔드(High-End) 상품을 선보이는 점도 가장 큰 특징이다.

GS25의 이번 추석 선물세트 중 대표 하이엔드 상품은 고든앤맥페일의 72년 된 싱글몰트 위스키 '고든앤맥페일 프라이빗 컬렉션 밀튼 1949'이다. 180병만 한정 생산돼 희소성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GS25가 2023년 추석을 맞아 총 800여 종의 명절 선물 상품을 준비했다. /GS25

이외에도 GS25는 최고급 주류로 꼽히는 '고든앤맥패일 프라이빗 컬렉션 롱몬1966'(2150만원)과 '샤또 페트뤼스 2012'(1099만 9000원), '맥켈란 31년 던컨테일러 옥타브'(990만원) 등을 함께 선보이며 이번 추석 명절 상품의 하이엔드 주류 라인업을 완성했다.

명절 기간 가장 수요가 높은 한우세트로는 '우월한우 No.9 명품불갈비세트'가 준비됐다. 투뿔(1++) 한우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투뿔넘버나인의 가장 귀한 꽃갈비살 부위로 구성된 상품이다

순도 99.9% 골드바도 출시된다. 이색 명절 선물을 찾는 고객과 금테크 수요를 반영한 명절 상품 구성이다.

황금연휴를 맞이해 여행상품도 대폭 강화했다. '사이판 윌드리조트 숙박권', '제주 살기'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늦캉스', '효도 관광'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상품이다. /최빛나 기자

애경산업

고불소 치약에 탈모완화 샴푸까지… 실속 '꽉'

'바이컬러·블랙포레' 선물세트

치약·칫솔·샴푸 등 생필품 구성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MZ세대, 탈모인 등을 위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애경산업은 MZ세대들을 겨냥해 뷰티 덴탈 브랜드 '바이컬러(BYCOLOR)'의 치약과 칫솔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바이컬러 선물세트에는 ▲구강이 예민한 분들을 위한 노란 색상의 '헬시온옐로우(고불소)' ▲누런 치아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파란 색상의 '데즐링블루(미백)' ▲입냄새와 입 속 텁텁함이 고민인 분들을 위한 붉은 색상의 '치어리레드(구치)' 치약 3종이 포함된다.

바이컬러 선물세트(위) 블랙포레 샴푸 선물세트(아래) /애경산업

아울러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블랙포레 샴푸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블랙포레 샴푸 선물세트는 블랙포레 프로즌 탈모증상완화 샴푸 2종과 두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스칼프마사지 샴푸 브러시로 구성했다. 특히 블랙포레 프로즌 탈모증상완화 샴푸에는 샴푸 제형이 조밀한 미세 거품으로 바뀌는 고밀도 미세거품 기술을 적용했다. L-멘톨 성분이 두피 상태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두피열'을 감소시키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살리실릭애씨드 등 탈모 증상 완화 성분 3종을 비롯해 비오틴, 검정콩 추출물 등도 함유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마켓

국내외 인기브랜드 특가 판매… 할인쿠폰 '무제한'

한가위 빅세일

삼성·LG 등 72개 브랜드관 운영

G마켓이 본격적인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명절 대목 전 쇼핑 수요를 겨냥, 역대급 혜택과 상품구색을 갖춰 16일간의 9월 최대 할인축제에 돌입한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 간 '한가위 빅세일'을 열고, 추석 선물세트부터 수입명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한다. 지난해 행사 대비 13% 많은 역대 최다 인원인 2만6000여 셀러가 참여한다.

할인쿠폰은 '무제한' 지급한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는 '15% 쿠폰'을 전 고객 대상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G마켓은 오는 26일까지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G마켓

7% 카드사 즉시할인 혜택도 선보인다. PLCC 스마일카드를 비롯해 4대 카드(삼성/KB국민/롯데/BC)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까지 할인된다. 여기에 최대 24개월 무이자할부도 선보인다.

상품경쟁력도 역대급이다. 총 72개의 브랜드관(▲삼성전자 ▲LG전자 ▲테팔 ▲덴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농심 등)을 열고, 국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또한 매일 저녁 8시 라이브방송을 열고, 단독 특가 및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선보인다. 알뜰족을 위해 '최저가 도전' 상품도 매일 선보인다.

이택천 G마켓 영업본부장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무제한 쿠폰, 카드사 할인 등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며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우수 중소셀러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품 경쟁력 또한 강력한 만큼, 명절 준비부터 나를 위한 쇼핑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롯데칠성음료

79년 전통 차례주… 합리적 가격에 고급스러움 빛나

백화수복

저온 발효로 청주 본연의 맛 살려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수복'은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 79년 전통의 대표 차례주다.

'백화수복'은 지난 1945년 출시된 이후 오늘날까지 79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100% 국산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해 사용했다. 또한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 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캡(병뚜껑)에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롯데칠성에 따르면 '백화수복'은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 맞춤이다.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이 700 *ml*, 1.8 *l* 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찬 바람이 부는 계절에 야외에서 음용하기도 좋다.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롯데 칠성음료 관계자는 "79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대로 엄선된 쌀로 정성껏 빚어 만든 청주 제품"이라며 "1만원대 전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기 좋은 술"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백화수복. /롯데칠성음료

유한양행

마그네슘 간편 보충… 액상제제 등 라인업 다채

'마그비' 시리즈

스피드액·액티브·맥스 등 선봬

유한양행 '마그비' 시리즈는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고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과 비타민B군, 그리고 비타민E를 보충해 주는 제품이다.

비타민B군은 모두 조효소로 작용하는 영양소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대사에 관여하여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젖산 축적을 방지해 피로회복을 돕는다. 비타민E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 응집을 막는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말초 혈행 장애시의 수족 저림과 수족냉증의 완화에 쓰인다.

마그비 스피드 /유한양행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효소가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에너지생성, 근육형성, 염색체 복구, 근육 움직임, 신경반응 등을 조절한다.

유한양행 마그비 시리즈는 마그네슘 영양제 관련 시장을 리드하고있는 제품이다. 활성비타민B군 등이 들어간 '마그비 액티브', 항산화물질인 감마오리자놀을 함유한 '마그마 감마', 액상제제로 손쉽게 복용 가능한 '마그비 스피드액', 마그네슘 함량을 높인 '마그비 맥스' 등을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강화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중 최근 선보인 마그비 스피드액은 액상제제로 손쉽게 개봉하여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다. 특히 새롭게 변화된 유기염 마그네슘인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은 용해도와 생체이용률을 향상 시키고 설사 부작용을 경감시켜준다. /이세경 기자

종근당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으로 건강 선물하세요"

벤포벨에스

메코발라민·우르소데옥시콜산 함유

종근당 '벤포벨 에스'는 국내 최초로 말초신경병증 치료 성분 메코발라민과 간기능 개선 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60㎎을 동시에 함유한 고함량 활성비타민이다.

벤포벨 에스는 기존 제품 대비 비타민 B군을 강화하고 육체피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에 쓰이는 신규성분을 추가하고 1일 최대분량을 확대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손상된 신경세포를 재생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벤포벨에스' /종근당

해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데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던 메코발라민 성분을 500㎍ 추가하고,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 100㎎ 외에도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스벤티아민 30㎎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약물로 알려진 우르소데옥시콜산의 함량을 비타민 표준제조기준 최대인 60㎎으로 높이고 타우린, 메티오닌, 오르트산 등도 함유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육체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 관계자는 "벤포벨 에스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영양불균형 등으로 현대인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B군과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하루 한 알로 보충해주는 제품"이라면서 "성분과 함량을 강화해 피로회복 효과를 극대화 벤포벨 에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함량 활성비타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웰푸드

명절 장거리운전, 졸음 걱정 '뚝'

롯데 자일리톨·졸음번쩍껌

페퍼민트향 등 강력한 휘산 작용

추석을 맞이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껌'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가는 길이 즐겁지만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쏟아지는 졸음과 싸워야 하는 운전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 이 때 껌을 씹어 뇌를 자극해 졸음을 쫓는 것이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롯데웰푸드의 '확! 깨는 롯데 졸음번쩍껌'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났다.

올해로 출시 9년째를 맞는 '확! 깨는 롯데 졸음번쩍껌'은 원통형 용기에 바둑알 크기의 코팅껌이 담겨 있다. 멘톨향과 페퍼민트향 등이 강력한 휘산 작용을 해 입안과 콧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롯데자일리톨껌' 또한 꾸준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롯데자일리톨껌은의 누계 매출액은 10%에 육박했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증을 받아 신뢰도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출시 23년째를 맞고 있는 롯데자일리톨껌은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을 사용한다. 품질이 좋은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해조 추출물인 후노란도 들어 있다.

또한 친숙한 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민트향과 쿨링향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입안을 향긋하고 상쾌하게 해준다. /이청하 기자

자일리톨껌(왼쪽) 졸음번쩍껌(오른쪽). /롯데웰푸드

사조

"사조참치로 친환경 가치 전하세요"

'리-유즈·리-그린' 선물세트

안심특선·생생참치 등 구성 다양

사조대림이 추석 선물세트에서 친환경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다.

19일 사조대림은 추석을 맞이해 '2023년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에 선보이는 2023년 추석 선물세트의 콘셉트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든다는 의미의 '리-유즈(Re-Use)'와 '리-그린(Re-Green)'이다.

이와 관련 사조대림 마케팅 담당자는 "특히 플라스틱을 총 91톤 절감했다"고 말했다. 부직포는 친환경 종이로 대체하고 선물세트를 서랍형태로 만든 결과 부직포 약 72톤, 트레이 약 16톤, 캔햄 플라스틱 캡 약 3톤 등 총 91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품 겉면 패키지 디자인에도 리-유즈(Re-Use)와 리-그린(Re-Green) 로고를 새겨 넣어 제품의 친환경적 가치를 높였다.

선물세트 구성도 다양하다. 사조참치, 해표 식용유, 안심팜 등을 담은 '안심특선' 시리즈인 ▲안심특선 E-65호 ▲안심특선88호 ▲안심특선 행복나눔호 등이 대표 제품이다. ▲고급유 3호 ▲안심특선 91호는 합리적인 가격대가 특징이다.

또한 프리미엄급 선물세트을 강화해 얼리지 않고 갓 잡은 생 참치로 만들어 살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필렛 통살 타입 참치캔 '사조 생생참치'로 구성된 프리미엄 생생참치세트 4호, 고급 어종을 사용한 '사조 프리미엄 참치' 4종을 담은 프리미엄참치세트 E호 등을 기획했다. /이청하 기자

사조대림이 선보인 친환경 콘셉트의 2023년 추석 선물세트. /사조대림.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 100여종을 선보인다.

상생·웰니스 담은 선물세트 100여종

'제일명인' 브랜드 론칭

'국민 선물' 스팸부터 건기식까지

CJ제일제당이 추석을 맞아 더욱 다양해진 구성의 선물세트 100여종을 선보인다. 특히 상생, 웰니스 등에 맞는 새로운 제품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CJ제일제당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올해 '제일명인'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며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제품을 선보인다. 생산은 중소기업이 맡고, CJ제일제당은 제품 컨셉트 기획, 디자인 및 유통 등을 담당한다. 선보이는 제품은 총 4종으로 ▲최순희 명장의 '제일명인 예천참기름' ▲임화자 명인의 '제일명인 한우육포' ▲유영군 명인의 '제일명인 조청한과 1호·2호'다.

명절 스테디셀러인 '스팸 선물세트'도 올해 물량을 늘렸다. 카놀라유와 스팸으로 구성된 '스팸복합 1호'·'스팸복합 5호'는 실속 있는 구성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프리미엄 세트인 '최고의 선택 프리미엄호' '블랙 라벨' 등도 좋은 반응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백설 콩기름, 요리올리고당, 사과식초 등 요리 소재 중심으로 구성한 '심플쿠킹세트 1호'와 '비비고 토종김 5호'는 1만원대로 출시돼 고물가 시대에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한 '한뿌리 흑삼진 녹용스틱'·'석류콜라겐 젤리' 등 건강 선물세트도 새롭게 출시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특별함과 실속을 모두 갖춘 선물세트로 명절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KGC인삼공사

홍삼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습관'

정관장 선물 프로모션

다보록 선물세트, 홍삼톤 등 구매혜택

KGC인삼공사는 추석을 맞아 '진짜 힘이 되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프로모션을 오는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하여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홍천웅', '홍이장군', '아이패스' 등의 인기 제품과 '홍삼정천', '천녹', '황진단' 등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홍삼톤'은 홍삼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성별, 체질 등에 구애없이 성인남녀 모두가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면역력 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후, 지난 한 해에만 100만 세트가 판매되는 등 현재까지 줄곧 정관장의 대표 스테디셀러로 인기를 얻고 있다.

라인업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홍삼톤골드'는 믿을 수 있는 원료, 섭취 및 휴대 편리성에 합리적인 가치까지 삼박자를 갖춘 제품이다. 홍삼의 쓴맛을 완화했고, 휴대 및 섭취가 편리하며, 흡수가 용이하다.

'홍삼톤골드'가 진한 맛이라면, '홍삼톤'은 좀 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홍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선물하기 좋은 부피감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이다. 더욱 차별화된 고급 제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인 '홍삼톤리미티드'도 있다. 상위 2% 수준의 최고 등급 홍삼인 '지삼'을 사용하고 엄선한 원료를 달여 내 귀한 분을 위한 고품격 선물로 적합하다.

/이세경 기자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가치 담은 증류식 소주 선물세트 3종 선봬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선물세트

세트별 특별한 술잔 함께 구성

하이트진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류식 소주 선물세트를 추천한다.

하이트진로는 9월부터 명품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선물세트 3종을 판매하고 있다.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3종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도) ▲'일품진로 오크43'(43도) ▲'진로 1924 헤리티지'(30도)를 각각 특별한 술잔과 함께 선물세트로 구성했다.

하이트진로 99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일품진로는 증류 초기와 말기의 원액은 버리고 중간 원액만 사용해 향과 풍미를 높였다. 또한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냉동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쳤다.

로열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오크43' 선물세트에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스트레이트잔 각 2개씩 1세트를 담았다. '일품진로 오크43'은 하이트진로가 엄격한 관리하에 오래 보관해 온 '12년 목통 원액'과 일품진로를 블렌딩한 고도수 증류주 제품이다.

천하일미를 세번 증류한 고귀한 결정체 '진로 1924 헤리티지'도 700ml 1병과 황동잔 1개, 24K 도금잔 1개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진로 1924 헤리티지'는 증류주 본연의 맛을 위해 최고급 임금님표 이천쌀만 100% 사용했다. 슈퍼프리미엄 증류주로 30도의 알코올 도수가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깨끗한 향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실속구성에 설렘·행복 표현한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AI 스페셜 에디션

AI '엑사원'이 패키지 디자인 제안

선물을 주는 설렘과 상상, 받는 순간의 행복함을 AI가 표현해 추석 선물세트가 예술 작품이 됐다.

LG생활건강은 'AI 스페셜 에디션 기프트 세트'와 'AI 스페셜 에디션 프리미엄 세트'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LG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이 패키지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이번 기획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의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LG 초거대 AI모델 '엑사원'의 플랫폼 중에 '아틀리에(Atelier)'를 통해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를 이미지화 했다. 세계적인 이미지 플랫폼사인 '셔터스톡'과도 협업해 다양한 선물을 생각하면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설렘, 행복감을 오색찬란한 하늘과 통통 튀는 진주의 형상으로 디자인했다.

특히 'AI 스페셜 에디션 기프트 세트'는 4만원대이며 ▲오가니스트 AI 스페셜에디션 샴푸 ▲온더바디 벨벳 AI 스페셜에디션 바디워시 ▲페리오 AI 스페셜에디션 치약 등으로 구성했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화장품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각 브랜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자연·발효 화장품 '숨37°'은 민감 피부를 위한 '숨37° 로시크숨마 엘릭서 에센스 스페셜 기획'을 선보인다. 빌리프는 탄력 잃은 피부를 케어하는 '빌리프 유쓰 크리에이터 에이지 넉다운 밤 스페셜 세트'를 기획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가족, 지인 건강까지… '핏'한 맞춤 영양 선물하세요"

마이핏 추석 선물 할인대첩

마이핏V, 이뮨128 등 최대 50%

동국제약은 추석을 맞아 '마이핏 추석 선물 할인대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에디션 '마이핏 V 이뮨128 선물세트'를 출시한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과 함께 동국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핏에 대한 소비자 성원에 보답하고자 기획된 이번 프로모션은, 동국제약 헬스케어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마이핏V와 멀티비타 이뮨128, 마이핏S 고소한 카무트 효소 등 마이핏 주요 제품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추석선물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핏 쇼핑백을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세트와 달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에디션으로 출시된 '마이핏 V 멀티비타 이뮨128 선물세트'는 8개입으로 판매되는데, 리본 그림을 더한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 디자인은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 담당자는 "길어진 추석 연휴는 반갑지만 부쩍 오른 물가로 고민이 늘어나는 요즘, 명절 선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위한 선물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핏'은 '내 건강을 위한 핏(fit)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게 마이핏V, 마이핏B, 마이핏S 라인으로 나뉜다. 핏(fit)한 맞춤 영양 설계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마이핏V로 채우고, 마이핏B로 비우고, 마이핏S로 유지해 건강한 라이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브랜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세경 기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275호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롯켓배송 입점하면
대만 진출
소상공인 판로 활짝
L1

한가위 특집
안전·신선은 기본
가치소비까지
L4-L7

80명 노인에 밝은 세상 선물
"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웃 돕고파"

인천 지역 80명의 노인이 밝은 세상을 되찾는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 지부가 사각지대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며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아주고 있는 덕이다.

지난 12일 인천 지역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온 70대 남성은 "그동안 땅만 보고 겨우 다녔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며 "어떻게 감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유영태 한국라이온스협회 인천 지부 총재(사진)는 그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다. 유 총재는 "그 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가치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부 총재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노인들의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인당 1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큰 사업이다. 협회가 직접 나서서 국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인들을 찾아 수술부터 검사와 진료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80여명의 노인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수술이 진행된 인천 연수구 연수김안과에서 유 총재를 만났다.

이세경의 속깊은 人터뷰

유 영 태

한국라이온스협회 인천지부 총재

135만명 회원 둔 '국제라이온스협회'
기근, 시력 등 5개 키워드로 봉사 펼쳐
총재 취임 후 백내장 수술 지원 시작해
사각지대 놓인 노인 찾아 치료 도와

-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백내장 수술 전 검사비용, 수술비와 수술 후 진료비와 약값까지 전체를 다 지원한다. 검사와 수술, 향후 진료도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는 것까지가 포함된다."

- 병원을 매번 직접 방문하나.

"되도록 그러려고 한다. 수술 전에 안정될 수 있도록 손도 잡고 말도 걸어드리고, 수술이 잘됐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켜본다. 진료를 오갈 때 식사도 대접하고 대화도 나눈다. 수술이 잘됐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다."

-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삶이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기회를 찾고 있다."

1917년 설립된 국제라이온스협회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비정부기구(NGO)다. 전 세계 135만명의 회원을 두고 각자의 회비로 운영된다. 국내에도 지역별로 21개 지구가 운영중이며 총 7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라이온스협회는 기근, 시력, 소아암, 환경, 당뇨등 5개를 키워드로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첫 사업으로 백내장 수술을 선택한 이유는.

"라이온스협회 가장 주력하는 것이 시력 사업이다. 1917년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가 돼서 라이온스협회가 설립됐다. 취임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가 협회의 기초가 됐던 시력 사업을 생각하게 됐다. 백내장은 수술로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받고 시력을 잃는 분들이 많다. 나도 백내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충을 이해한다. 그런 분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 사업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

"클럽 소속 회원들의 회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천 지구에만 클럽이 70개 운영 되며 그 안에 2000명의 개인 회원들이 있다. 그들이 내는 회비를 모아 사업을 진행하고, 함께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는 섬을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도 인천 지역 안과, 정형외과, 외과, 한방병원, 피부과 등 5개 과의 의사들이 덕적도를 직접 찾아가 이틀간 의료봉사를 펼쳤다.

- 의료봉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

"이번에 시력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섬들 대부분은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높지만 많은 분들이 어업 농사에 종사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섬 자체 의료 환경은 열악하고 육지를 오가기에도 제한이 있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의료봉사 외에 구상중인 것은.

"우선 시력 회복 봉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보청기 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다. 우리 협회 회관 1층에 80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무료급식소로 운영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클럽들이 구역을 맡아 산이나 해변가에서 수시로 쓰레기를 줍고 가꾸는 환경 정화 사업도 구상한다."

유 총재는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봉사하고 싶지만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구청과 주민센터 등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그는 원활한 봉사를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비중 높은 섬 방문해 의료봉사
보청기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 구상
개인정보보호 등 대상자 찾기 힘들어
원활한 봉사 위해 시스템 개선 필요해

- 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봉사를 하고 싶어도 대상자를 찾기가 정말 힘들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찾으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도움이 절실한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돕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은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노인들을 외면하는 셈이다. 우리가 노인협회와 업무협약까지 맺어가며 대상자를 직접 찾아나서는 상황이다. 봉사를 하고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 이웃을 한명이라도 더 도우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매번 절실히 느낀다."

- 임기 중에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우선 80명의 노인들이 우리 시력 지원 사업으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 분 한 분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쓸 계획이다. 임기 중에 조금 더 많은 봉사자가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1000명을 더 모집해 3000명으로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영태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부 총재(왼쪽 네번째)가 협회 지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환자들을 직접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레슬링 남자 자유형, 세계선수권 1회전 전원 탈락
▲"이 종목이 AG에?"…카바디·e스포츠·용선, 이색 종목 '눈길' /사진 뉴시스

▲'세르비아 무난 데뷔전' 황인범, 이제 시선은 맨시티로
▲박혜정, 세계역도선수권 女 최중량급 한국 최초 3관왕

▲우상혁, 2m35넘고 다이아몬드리그 우승…韓 육상 새 역사
▲'월드컵 아쉬움 씻는다'…여자축구, 항저우로 출국 /사진 뉴시스